

작은 이야기 큰 도리

바보의 즐거움

류환 역



연변인민출판사

작은 이야기 큰 도리



바보의 즐거움

류환 역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崔东日

责任校对：南今月

技术设计：郑善淑

图书在版编目（C I P）数据

傻瓜的快乐：朝鲜文 / 黄建华主编；柳恒译. —
延吉：延边人民出版社，2010. 7

ISBN 978-7-5449-1211-2

I. ①傻… II. ①黄… ②柳… III. ①故事-作品集
-世界-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IV. ①I1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134851号

傻瓜的快乐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9.125 字数：220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1211-2 （民文）

版次：2010年7月第1版

2010年7月第1次印刷

印数：1-1,000册

定价：16.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누구나 알고있는 큰 도리는 모두 크고 놀라운 사건속에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리해되는것이 아니다. 반대로 일부 사람들의 중시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작은 일에서도 이런 대도리의 내포를 보아낼수 있다.

이 책속의 이야기들은 사회, 력사, 종교 등 방면에서 찾아낸것인바 편폭이 짧고 권유, 풍자와 교육적의의를 가지고있다.

독자들은 이런 작은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하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인식하게 될것이다.

이 책은 언어가 세련되고 내용과 형상이 생동하며 예술풍격이 다양하여 독자들의 열독과 수장에 적합하다.

차 례



성공의 비밀	1
선사의 눈물	3
약자의 도움을 받을줄 알아야	4
기회를 포착하라	7
촌장과 방랑자	9
남자애의 보배	11
비통을 미소뒤에 감추라	13
새끼까마귀와 아빠까마귀	15
바람과 성냥	18
송곳으로 엉덩이를 찌르다	19
위험에서 벗어나다	21
죽을 먹으며 공부한 아이	23
소년시절에 큰뜻을 세운 구준	25

포송령과 오경재	28
맹자의 어머니가 세번 이사를 하다	35
게사니를 심문한 리여진	38
소혀사건을 처리한 포중	40
이슥이 길을 가리켜주다	42
장자가 쌀을 꾸다	44
호공자를 징벌한 해서	46
재상의 배에는 배를 띄울수 있다	48
참는것이 용감한것	50
조착이 죽음을 당하다	53
남을 받아들이라	55
스승을 모신 종은	57
불에서 밤을 주어내다	59
백제성에서 아이를 맡기다	61
뱀을 굴에서 끌어내다	63
지혜, 재부, 행복	65
사유속도	69
딸애의 령감	70
상벌은 분명하게	72
맹상군이 의리를 사다	73
백성을 동정하다	75
군신의 도	76
정치를 묻지 말아	79
물고기를 사다	81

금전과 생명	83
장진의 판결	87
자업자득	89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91
백인사	93
친구를 용서하다	95
마음을 보이라	97
여섯번째 반지	99
말라버린 우물안의 당나귀	101
남녀 칠세 부동석	103
화로 인한 복	105
락관과 비관	108
삶의 광주리	110
하느님의 시험	112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114
사랑의 세부	116
생명을 고루 나누다	118
아버지와 아들	120
명성	122
제자를 받다	125
안자와 월석부	127
여우의 죽음	129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	132
계포가 전화되다	135

맹획을 사로잡다	138
레절로 존엄을 지킨 안자	145
악담은 비수와 같다	148
최초의 아픔	150
네번째 문제	152
수의 호주머니	154
길을 아는 선장	156
누가 지옥에 들어갈까?	157
문지기천사	159
이상한 주전자	160
인연의 경지	162
“귀신”이 따른다	165
주정뱅이	167
창밖의 풍경	169
영원히 잊지 못할 낯선 사람	171
과학자의 놀이감	173
감사할줄 알라	175
착오를 승인할수 있는 용기	178
생활의 세부	180
기적이 아니다	182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것과 위로 향하는것	184
마지막 일분	186
마지막 보석	187
원 모양을 유지하다	189

황금알을 낳는 닭	191
바람과 해	193
약이 없다	195
힘이 자라는만큼	197
비우는것이 즐거움이다	199
차지 않은 물독	201
열에서 하나를 덜면 얼마일가?	203
바보의 즐거움	205
두번의 겨룸	207
대통령의 딸	209
선의적인 권고	211
전쟁	213
선택	215
검손과 레절	216
미소의 기적	218
손에 쥔 모래	220
훔칠수 없는 물건	221
손가락의 이야기	223
양몰이군의 착오	225
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하다	227
일분간에 발생한 일	230
현상과 본질	232
지름길	234
국왕에게 보내는 “독약”	236

국왕과 자객	238
화미조의 선택	240
강태공의 낚시질	242
주원장을 일깨워준 주승	245
별을 주어 불을 끄게 하다	247
군자의 복수	249
구명의 거동	251
지식을 가지는것은 모든것을 가지는것이다	253
하느님은 누구도 더 주지 않는다	255
희망의 줄	257
하늘이 무너지면 이불로 삼는다	259
하늘에 대고 침을 뱉지 말라	261
도적질 한번	263
대붕과 참새	266
덕을 보다	268
길은 어디에나 있다	270
포기와 견지	272
앞날을 걱정하라	274
소극적인것과 적극적인것	276
즐거움은 마음의 경지	278
역방향사유	279

성공의 비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

선사는 직접 성공의 비결을 알려준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팔을 앞뒤로 흔드는 동작을 해보이고나서 말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매일 3백번씩 이 동작을 해봐라.”

제자들은 선사의 말에 의혹을 느꼈다.

선사가 말을 이었다.

“이 동작을 매일 완성하고나면 일년후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것은 너무 간단한 일이 아닌가고 생각했다.

어느새 한달이 지났다. 선사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내가 배워준 동작을 누가 견지하고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참, 잘했구나. 모두들 계속하여 열심히 그 동작을 반복해 보라.”

다시 한달이 지났다. 선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작을 견지했는가를 또 물었다. 이번에는 절반이 좀 넘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시간은 빨리도 흘러 일년이 다되었다. 선사가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다.

“누가 오늘까지 그 운동을 견지하고있느냐?”

이때 겨우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선사의 눈물



공야선사가 외출하여 불법을 전파하게 되었다. 어느날 공야선사는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화적들을 만나게 되었다. 화적들은 손에 칼을 들고 선사더러 “길세”를 내라고 했다. 공야선사는 그 광경에 저도 몰래 눈물을 흘렸다. 화적들은 선사가 겁쟁이라고 놀려주었다.

잠간후 공야선사가 뚝뚝하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이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는것이라고 생각지 말어라. 로승은 이미 생사를 패념하지 않느니라. 난 다만 너희들처럼 이렇게 힘있는 젊은이들이 왜 바른 일을 하여 큰 사업을 이루지 않을가고 생각했을뿐이다. 이렇게 나가다간 너희들의 죄가 나라의 법률을 위반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거다.”

화적들은 그 말에 모두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불교에 입문하여 공야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약자의 도움을 받을줄 알아야



한차례의 광풍이 불어친 북대서양의 언덕에 차츰 해살이 찬연해졌다. 두꺼비 몇마리와 자라 한마리가 따스한 해별을 한 몸에 받으며 백사장에서 한가롭게 산책을 하다가 언덕에 올라온 북태평양의 주인—저파(猪婆)룡을 발견하게 되었다. 저파룡은 평소에 비와 바람을 불러오며 크게 위풍을 과시하고있었다. 그러던 저파룡도 물이 없는 언덕에서는 촌보도 움직이기 어려워 자기의 신력을 보여주지 못하고있었다.

두꺼비와 자라가 웃으면서 자기를 향해 기여오자 저파룡은 그들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냈다. 몇몇 작은 동물들은 저파룡의 랑패상을 보고 기뻐하며 이 바다밑 패주를 두고 너 한마디 나 한마디 놀려댔다. 가장 작은 두꺼비가 말했다.

“아니, 이게 비바람을 몰아오던 영웅호걸 저파룡이 아니에요? 당신은 신력이 대단하다던데요? 오— 당신은 오늘 여기 와

서 별쪼임을 하는거지요?”

다른 몇몇 동물들은 더 크게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에 저 파룡은 화가 치밀었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다.

(참, 난 왜 언덕으로 헤엄쳐나왔던가? 그래 다 그 얄미운 조수때문이야.)

이때 다른 한 두꺼비가 말했다.

“가련하네. 개울에 빠지니 봉황도 닭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지? 우리를 봐라. 물에서 헤엄치고 언덕에서 걸어다니고 못 하는것없이 얼마나 자유로운데… 지금 당신은 정말 우리보다도 못하네요. 참, 재간이 있은들 무슨 쓸모가 있겠소?”

바다에서라면 그들은 감히 저파룡한테 이렇게 말할수가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저파룡은 근본 움직일수가 없기에 두꺼비와 자라들은 시름놓고 놀리고있었던것이다.

나중에 한 위망있는 늙은 두꺼비가 입을 열었다.

“저파룡아, 평소 넌 우리들의 존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지. 지금 넌 여기에 갇혀 그 고통을 맛보고있겠지? 이렇게 하자. 네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면 우린 널 물속에 데려다줄수 있다. 네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를 가만 놔둘수 밖에 없구나.”

저파룡은 또 옛날의 오만함이 되살아나 고개를 돌리고 두꺼비와 자라들에게 결눈도 주지 않았다.

자라와 두꺼비들은 짐짓 저파룡을 도우러 가는체하다가 걸음을 돌리면서 또 입을 열었다.

“저파룡아, 우린 곧 여길 떠날거다. 이걸 너의 마지막 기회

다. 다시한번 물을게, 우리가 널 도와 물속에 보내줄가?”

저파룡은 자존심을 버릴수가 없어 결을 내며 말했다.

“난 다른 사람한테 청을 드는 습관이 없다. 여기서 죽더라도 영웅처럼 죽을것이다.”

자라와 두꺼비들은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려 떠나버렸다...

기회를 포착하라



아태는 가난한 아이였다. 그는 가난한 생활을 더 참지 못하여 밖에 나가 보물을 찾으려고 했다. 그는 산을 넘고 물을 건느며 고생을 하다가 끝내 한 식물림속에서 두그루의 보기 드문 나무를 찾았다. 이 나무는 코를 찌르는 향기를 뿜을뿐만 아니라 물속에 잠그면 쇠처럼 무거워졌다. 아태는 이 두그루의 나무를 찍어 시장에 내다 팔려고 했다.

반나절이 지나도 아태의 나무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하지만 옆에서 땔나무장사는 대단히 흥성했다. 아태는 자기가 가져온 두그루의 나무를 작게 패서 땔나무로 팔려고 했다. 나무는 인차 팔려나갔다. 아태는 마을에 돌아와 이 뜻밖의 수확을 자랑했다.

한 로인이 아태의 말을 듣더니 아까와하며 유감이라는듯 말했다.